

한라시론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하천습지 소(沼)의 보전관리 필요하다

날씨가 풀리고, 봄기운이 완연할 즈음이면 한라산 자락의 오희들과 초지는 온통 연둑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터이다. 겨우내 숨죽이고 있던 자연 생태계의 변화무쌍한 모습은 가히 불만하다. 특히, 물이 흐르지 않고 말라 있어서 생명체라고 없어 보이는 제주의 건천에도 생태계는 다양한 연결고리를 갖고 존재한다. 제주의 하천은 지질 특성상 대부분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의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소(沼)라고 불리는 하천 내 암반 위에 산재한 크고 작은 물웅덩이는 여러 생명을 품은

오아시스와 같다. 엄연한 습지인 셈이다. 봄에 시작해서 여름 내내 양서 파충류의 산란장소를 제공하고, 이들의 서식처가 돼 준다. 하천 변을 따라 긴 띠처럼 녹지층을 이룬 수림지대에는 다양한 종의 새들이 서식한다. 그중에 긴꼬리딱새, 팔색조, 두견이 등 법정보호종으로 지정된 이들 여름 철새들은 소가 분포하는 하천의 수림대와 주변 산림지역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조류이다. 또한, 겨울철에는 하천의 소 주변에서 자라는 종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열매를 먹이로 하는 원앙 무리가 규모가 큰 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도내 하천의 소에서는 버들치, 미꾸리, 드렁허리 등의 민물고기도 서식한다. 조사자들에 따르면 제주도 하천에는 약 40여 종의 민물고기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제주도 내 하천습지는 양서파충류와 조류는 물론이고 어류, 수서곤충, 포유류 등의 서식에 있어서 중요한 생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의 하천습지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도 밀접하다. 주민들은 하천의 소마다 이를 지칭하는 고유 명칭을 붙여놓았다. 중산간 마을의 아이들은 바닷가를 대신해서 하천의 소에서 물놀이를 즐겼던 추억이 있다. 또한, 일부 소 중에는 용천수로서 주민들의 식수로 이용된 사례도 많다. 이처럼 제주의 하천은 습지로서 중요한 생태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지만 제대로 된 평가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과거부터 잦은 하천정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하천 바닥을 평탄화하는 바람에 하천의 소들이 훼손되기 일췌였다. 정책적으로도 제주도의 습지 보전

관리 대상에 하천습지는 단 한 곳도 포함돼 있지 않다. 하천의 소를 중심으로 생태적 기능을 하는 하천습지를 습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질학적, 생태적 가치는 물론 역사·문화적 가치도 함께 지닌 제주 하천습지의 보전가치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정비 공사로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하천습지에 대한 보전관리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우선 도내 하천마다 소의 분포 현황과 습지 생태계로서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기초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분별한 훼손 행위를 막고, 하천의 습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하겠다. 그동안 잊혀 왔던 제주 생태계의 숨은 가치, 하천습지 소(沼)의 보전을 위한 도민의 관심이 요구된다.

사설

망언에 잠들지 못하는 4·3 영령들

잇몸만하면 4·3 망언이 또 튀어나와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 회차 제주를 찾은 태영호 의원은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북한 개입설' 발언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태 의원은 "북한 대학생 시절부터 4·3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이 김일성이라고 배워왔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4·3특별법에 근거한 진상조사보고서에는 '김일성 지시 4·3이 시작됐다'는 내용은 없다. 4·3을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외중에 양민이 희생된 사건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진상보고서가 가짜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처럼 이미 결론이 내려진 역사적 사실을 또다시 왜곡한 것은 4·3특별법의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 보수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4·3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4·3에 대한 상생의 노력은 역대 정부로부터 이어져 왔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가권력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 박근혜 정부 4·3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몫"이라며 국가책임을 강조했다. 역사적 비극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흔을 안기는 물엿치행위이다. 태 의원은 4·3 영령들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희생자와 유족, 도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또 정지권은 5·18특별법처럼 4·3 관련 역사왜곡을 처벌할 수 있도록 4·3 특별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열린마당

자살, 모두의 관심으로 예방하자



김경덕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키는 구급대원이다. 그러므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살 예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리고자 한다. 첫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자살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대화와 연결성이 필요하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낀다. 셋째, 마지막으로 개인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건강 문제는 자살 위험 요소 중 하나이다. 불행하게도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주변에는 자살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자살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다. 우리는 자살에 대해 더 많은 인식과 이해를 하고, 주변 이웃에게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며, 전문가와 함께 협력해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분명고 고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난달 19일 번개탄과 소주를 주문한 손님의 안색이 수상하다고 판단한 컵서비스 배달원의 신고로 출동을 나갔다. 현장 도착 시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인기척이 들리지 않아 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진입했다. 집 안에는 번개탄 가스중독으로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병행하며 신속히 응급실로 이송했다. 다행히 현재 환자는 치료를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최근 들어 한때의 잘못된 판단이나 생각으로 자살하려는 사람은 꾸준히 늘고 있다. 필자는 생명을 지

뉴스-in

“지진 대비 공공시설 등 내진 성능 보강을”

선제적 대책 마련 주문

○...사망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등 엄청난 인명 피해를 내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의 대규모 지진과 관련 강병삼 제주시장이 제주에서도 선제적으로 지진에 대비해달라고 주문. 강 시장은 15일 열린 주간 간부회의에서 지난주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을 언급하며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 보강,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사업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건조한 날씨를 이어지는 봄철 산발 예방을 위한 대책 분부 운영, 산발 감시·진화 인력 교육 등 산발 방지에 대한 철저한 종합 대책 추진과 더불어 제주돌봄축제가 열리는 새별오름 일대에 대한 방화선 확보, 잔물 관리 등 특별 관리 대책 마련을 요청. 진선회기자

제주연구원, 혁신 선편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양덕순 원장이 취임한 제주연구원이 스스로의 내부 문제점을 제시하고 연구 신뢰도 제고와 현장중심·성과체계 강화 등을 위한 혁신을 선편해 주목. 제주연구원은 15일 온정주의 평가, 연구변별력 저하, 정책수요 능동적 대응 한계를 내부 문제점을 제시하고 연구원 2인 아웃제 강화, 제주미래기획위 구성, 정책과제 선정 다양화, 행정 시범 전담연구원제 도입 등을 혁신과제로 추진할 예정. 이와 함께 각종 부설센터 관리 강화와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원장제를 도입하고 연구부서도 자치문화·혁신경제·환경도시·기반산업 등 제주 자치도 실국별 체제에 맞게 4개 부서로 조직도 개편. 위영석기자

버스 준공영제 개선 大失所望 안되도록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심 급행버스를 도입하고, 등하교 및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 배차를 늘리는 등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더 빠르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적자 폭 감소 등 재정 건전성 확보는 기본이다. 이번 버스 노선 개선의 가장 큰 특징은 교통량이 집중되는 도심에서 이용자들이 정시성을 확보하도록 시내급행버스 3개 노선을 신설한 것이다. 제주시 동서축(하구~함덕)과 남북축(제주국제대-제주항)을 신속하게 이동하는 2개 노선과 서귀포시 동서축(대정-남원) 1개 노선이다. 또 노선 효율을 위해 장거리 2개 노선 단축과 13개 노선 통폐합, 12개 노선 폐지 등으로 운행거리와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수익성이 적은 관광지 순환버스는 폐지하거나 준공영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대상에 올렸다. 제주도는 노선 통폐합, 운행횟수 조정, 버스 중소형화 전환 등을 통해 약 218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도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이끌고 버스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며, 도민 만족도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바라던 일이 아주 허사가 돼 매우 실망함을 일컫는 대실소망(大失所望)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간의 진행과정 등을 보면 우려할 수 밖에 없다. 버스 이용객이 적지않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한다. 버스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씻고, 이용객들로 부터 만족할만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풍천임공 광흥(前 JC특우회장·前 국제로타리 3662지구회장(36대)·향년 84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 2월 16일
부인 김미원
아들 임홍식 며느리 한승희
영식 고연임
태식 문현아
딸 임설아 사위 고경민

차고지/주차장
市の 자기차고지갯기사업
\*市 지원 90%\*
2023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중
\*자기차고지갯기사업\*
No.1 시공업체
편리한생활건축설비
010-9908-9200
종합철수리/하자보수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술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택지, 상가 긴급매각
1) 성산포 500평 현재 70% 공사중 해안도로접
2) 송당리 1,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750,000원) 관광농원 입구, 송당리 마을, 2차선 접합
3) 종달리 6,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1,600,000원) 우도와 일출봉사이 바닷가
4) 시흥리 5,000평 (분할 가능) 잡종지, 일주도로 접합
5) 성산포 12,000평(분할 가능) 해안도로 접합
010-4820-4823
(부동산중개사 아님)

토지임대
제주시 월성로4길 76-2
(해태동산/공향방면 우측)
대지 4,123㎡(1,247평)
건물 2동 / 2중 근린생활시설
현재 렌터카 차고지
임대료 상담후 결정
744-2002, 010-2113-2112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주소장 ☎010-7305-7819 제주투데이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을 가야할 것인지, 이공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복비 : 50,000원
전화 010-7301-7737

강정동 카페 및 펜션 토지 매각
1) 강정 해안도로 접 607평 (카페 A급 토지)
2) 강정동 주택지 373평
3) 강정 해안도로 뒤 370평 (건축 높이 17m가능)
4) 서귀포 이마트 근접 180평 (비다조망 건축가능)
5) 월평포구 도로 근접 590평 (상가 및 펜션 건축가능)
6) 호근동 일주도로 위 범섬조망 180평 (주택 건축가능)
7) 고근산 뒤 5,000평 조정식재 (별장 건축가능)
※ 부동산중개사 아님
010-7328-1107, 010-6275-5200